

K-기업 해외영토 확장

남부발전, ‘루틸 BESS’ 착공 글로벌 에너지 사업 본궤도

HD현대일렉트릭 등 ‘팀 코리아’ 활약
배터리 밸류체인 수출 대표사례 평가

한국남부발전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MWh 급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에 착수하며 북미 에너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남부발전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200MWh 규모 ‘루틸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체결한 EPC(설계·기재 조달·시공) 계약의 후속 절차다. 착공식에는 남부발전 박영철 경영기획부사장을 비롯해 공동 투자자인 알파자산운용, KBI그룹, EPC를 담당하는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들이 참석해 ‘팀 코리아(Team Korea)’ 협력 체계를 재확인했다.

‘루틸 BESS’는 남부발전의 미국 내 세 번째 사업이자, 대용량 BESS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프로젝트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알파자산운용, KBI그룹과 공동 투자 형태로 추진된다. 전력 가격이 낮을 때 저장한 전기를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하는 ‘에너지 차이거래’는 물론, 텍사스 전력망의 주파수와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계통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200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다. 설계부터 기재 조달, 시공, 금융 조달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업의 기술과 자본으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K-배터리 밸류체인’ 수출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사용되는 배터리 모델은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J



현지시간 23일, 미국 텍사스 ‘루틸 BESS’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준혁 알파자산운용대표,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 최준석 KBI 전무, 강봉주 HD현대일렉트릭 전무. /남부발전

F2 모델이다.

사업지가 위치한 텍사스주는 AI(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BESS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러한 시장 환경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루틸 BESS 사업은 남부발전이 가스복합 발전 중심에서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대한 변곡점”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원팀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저력을 바탕으로 K-배터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북미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포스코퓨처엠, 팩토리얼 투자 전고체 배터리시장 본격 진출

대규모 투자로 시장 성장세 선제대응 나서
실리콘 등 소재 포트폴리오 지속 확대 방침

포스코퓨처엠이 미래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전고체 배터리 업체 팩토리얼에 투자하며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에 나선다.

포스코퓨처엠은 팩토리얼과 투자 계약을 맺고 투자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데 이어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포스코퓨처엠은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팩토리얼은 고품질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배터리 제조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 홍영준 연구소장은 “양사는 지속적이고 긴밀한 파트너십 속에 소재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며 “한층 발전된 파트너십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시장 개화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팩토리얼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본사를 둔 전고체 배터리 업체 선도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충남 천안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운영하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팩토리얼의 전고체 배터리 플랫폼 ‘솔스티스(Solstice)’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유럽·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미 팩토리얼과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샘플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다수 소재사 가운데 출력 특성 등 품질 경쟁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이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소재는 자율주행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뿐 아니라 휴머노이드와 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포스코퓨처엠은 전고체 배터리에 최적화된 소재 설계 및 코팅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황화물계 고체전해질과 실리콘-리튬메탈 음극재 등 전고체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



포스코퓨처엠 포항 양극재 공장 전경. /포스코퓨처엠

SK이노 E&S, 호주 천연가스 공급망 확보

바로사 가스전 자원개발 사업 결실
20년간 연간 약 130만t LNG 확보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첫 LNG 카고로 선적하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결실을 맺었다. 국내 민간 기업이 자원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LNG 생산과 선적까지 전 과정을 완주한 첫

사례다.

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다윈(Darwin) LNG터미널로 운송돼 첫 LNG 카고 선적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서부 해안에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가스전으로, SK이노베이션 E&S가

지분 37.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산토스(Santos)와 일본 제라(JERA)가 각각 50%, 12.5%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가스전 매장량 평가부터 인허가, 해상 및 육상 설비 건설까지 전 과정에 총 16억달러(약 2조원)가 투입됐다.

이번 생산 개시로 SK이노베이션 E&S는 향후 20년간 연간 약 130만 톤의

LNG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국내 연간 LNG 도입량의 약 3%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국제 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커진 글로벌 에너지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규 LNG터미널을 건설하는 대신 바로사 가스전 인근의 다윈 LNG터미널 설비를 개조해 재 활용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 방식을 적용해 투자비를 크게 절감했다. 중동이나 미국 대비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에서 가스를 도입해 수출 기간

을 약 10일로 단축한 점도 물류비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바로사 가스전의 첫 LNG 생산은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 분야에서 민간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도전해 이뤄낸 성과”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국내 자원안보 확립에 기여하고, SK이노베이션 E&S의 사업기반을 공고히 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경협, ‘3차 한국-캐나다 CEO 대화’ 개최

조선·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 모색

한국과 캐나다 주요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전략 산업분야(조선·방산, 에너지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캐나다기업연합회(BCC)와 함께 ‘제3차 한국-캐나다 CEO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필립 제닝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과 빅터

피렐리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양국 정부 인사와 고위급 기업인이 참여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단순한 교역 파트너가 아닌 산업과 안보,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방위산업, 핵심광물, 에너지를 양국 파트너십의 3대 핵심 축으로 꼽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이미 캐나다를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간 협력 확대가 공급망 안정성 강화, 상호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CEO 대화에는 양국 정부인사와 주요 기업인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창범 부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손재일 한화시스템 사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정무경 고려아연사장, 이현수 LIG넥스원사장,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사장, 구본승 KTE 사장, 이혁재 LG에너지솔루션 북미총괄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골디 하ighter BCC CEO와 BCC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두 공동위원장인 글로벌 금융그룹인 선라이프파이낸셜의 케빈 스트레йн CEO와 루츠(소비제)의 메간 로치 CEO를 비롯해 CAE(항공우주), 에어 캐나다(항공), 클린 그리드 아틀란틱(에너지), 해치(건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이 26일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국-캐나다 CEO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 특사로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필립 제닝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과 빅터 피렐리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 등 양국 정부 인사와 고위급 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팅)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CEO들이 함께 했다.

한경협 측은 “이번 행사는 양국 정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전략적 공간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